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임금의 옥새, 새인봉		
활동목표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의 거점별 해설을 제공하여 맞춤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주제	증심사지구 새인봉		
해설재료	태블릿PC (사진자료)	소요시간(')	60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숨돌리기	- 첫인사 - 국립공원 이해하기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10'	
주제별 해설	새인봉 소개	- 새인봉에 올라 - 왜 새인봉일까요?	10'	
	새인봉 둘러보기	- 뱃머리에 느끼는 산들바람 - 이 바위는 무얼 닮았나요?	20'	
	약사암	- 증심사 보다 더 빠른 약사암	10'	
정리	마무리	- 무등산을 사랑합시다 - 끝인사	10'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임금의 옥새, 새인봉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첫인사	(밝고 명랑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임금의 옥새, 새인봉” 프로그램 해설을 맡은 무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단체의 경우 단체명 등) 여러분의 무등산국립공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국립공원 이해하기	우선 출발하기 전에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유도)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 가본 곳 있으신 분 있으세요? 가보긴 했는데 국립공원인지 모르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과연 어디어디가 국립공원이 였을까요? 북한산, 설악산, 덕유산, 지리산, 변산반도, 한려해상 등 전국 방방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공원이 21곳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그렇다면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국립공원이 되는 것일까요? (대답유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생물종의 41%,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생물자원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소개	드디어 광주에도 국립공원이 생겨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3년 3월 4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후 25년만 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화순군과 담양군까지 걸쳐져 있는 호남의 진산이며 광주시민들은 어머니의 산이라 불릴 정도로 사랑받는 산입니다. 무지개를 뿜는 돌과 같다 하여 무돌산 또는 서석산 그리고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에서 무진악이라 불렸습니다. 증심사 쪽에 무당골이 있어서 또는 큰 당산(마을의 수호신있는 산이나 돌)으로 삼아서 무당산으로도 불렸습니다.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무등산은 무돌(무지개를 뿜는 돌)의 이두음으로 써서 고려 때부터 무등산으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1,187m로 완만한 산세를 이루는 흙산으로 멸종위기종 8종을 포함한 2,296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상절리대(입석대, 서석대 등), 너덜경(지산너덜, 덕산너덜등)같은 기암을 포함한 61개소의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문화경관자원으로는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보물 2점을 포함한 지정문화재 1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수박과 차가 유명하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크게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로 나뉩니다. 여기분들이 모인 이 곳은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구입니다. 증심사지구에서 가볍게 오르기에는 증심사를 지나 당산나무로 중머리재까지 올라가시고, 광주시가의 전경을 보며 올라가고 싶으시다면 약사암을 지나 새인봉까지 코스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지구 뒤쪽으로 새인봉으로 바로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장점이라면 빌딩숲속에서 자연의 숲속으로 어느새 와서 빌딩숲속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속에서 아등바등 했던 일상을 지우고 마음에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인봉에 올라	(새인봉에 올라) 자! 지금 이 곳이 바로 새인봉입니다. 증심사에서 새인봉까지 올라오는 길은 약간 힘이 드는 편이지만, 새인봉에 오르면 탁 트인 광주시가지의 모습이 보여서 땀 흘리며 올라온 시간을 잊게 해 줍니다. 잠깐 여기에 앉아 쉬면서 자신의 집이 보이는지 찾아볼까요? 자~우리 집이 보이는지 찾아봅시다. 자유롭게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잠시 숨을 돌린 후) 어떤가요? 방금 전까지 도심 속에 갇혀 있다가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도시를 바라보는 느낌, 이래서 많은 분들이 무등산을 찾아오지 않나 싶습니다. 도심권 국립공원 중 해발 1,000m가 넘는 산은 이 곳 무등산뿐이랍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도 해발 837m입니다. 그렇다면 무등산국립공원의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대답유도) 네, 앞서 말했듯이 해발 1,000m는 넘겠지요? 바로 해발 1,187m입니다. 무등산 원효사 종점으로 가는 유일한 시내버스 번호도 1187번인걸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새인봉의 유래	그렇다면 이 곳 새인봉은 해발 몇 m일까요? 새인봉은 해발 496m로 두 개의 바윗덩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의 바윗덩이가 임금의 옥새같다하여 '새인봉(璽印峯)'또는 '인괘봉(印掛峯)'이라고 합니다. 새인봉을 사인암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새인봉이 천제등을 향해 엎드려 있는 사인(舍人:고려 때 관직)의 모습을 닮았다고 붙여진 것입니다. 천제등은 증심사에서 중머리재로 가는 중간지점으로, 옛날 광주고을 사람들이 국태민원을 기원하거나 기우제·기설제·기청제를 지냈던 제단으로 천제단이라고 하며 천제봉, 천제등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또 '엎드려 있는 사인'이란 말에서 '사인'이란 고려시대 때의 관직을 말합니다. 어떤가요? 새인봉에 올라와서 보니 새인봉이 사인암으로 불려질만 한 것 같나요?(대답유도) 최남선의 <심춘순례>에 보면 새인봉의 모습을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에 붉은 사모를 쓰고 천제봉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두암	(선두암이 보이는 위치에서) 앞에 보이는 암석은 선두암이라도 합니다. 왜 선두암일까요?(대답유도) 이름그대로 뱃머리와 같다고 하여 선두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뱃머리와 같나요? 뱃머리에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영화가 있지요?(대답유도) 네,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명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대답유도) 조용히 눈을 감고 팔을 벌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인봉호 뱃머리 위입니다. 뱃머리가 바다를 가르는 바람을 느껴 보겠습니다. 자! 다들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느낌나누기)
마왕바위	새인봉 정상 남쪽 절벽에 기이한 얼굴 형상을 띠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바위입니다. 무엇을 닮았나요?(대답유도) 이 바위의 이름은 마왕바위입니다. 마왕바위는 킹콩바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마왕의 얼굴 같나요? 킹콩의 얼굴 같나요? 아니면 무엇 같나요? (방향을 가르키며) 마왕바위는 이 쪽에서 보시면 잘 보이는 각도입니다. 어때요? 보여드렸던 사진하고 흡사한가요? 다음번에 새인봉을 찾아 오시면 친구분들게 마왕바위 함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인봉삼거리에서 약사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약사암	(주위를 둘러보며) 이 곳은 약사암입니다. 이 곳이 약사사인지 약사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사사와 약사암은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대답유도) 약사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21교구 송광사의 말사인 증심사의 부속 암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심사의 부속 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사, 사찰이 아니고 암자이기 때문에 약사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곳을 약사암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곳 약사암은 신라시대에 철감선사 도윤이 847년(문성왕 9)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 창건하여 인왕사라고 했다가, 고려 예종(1105~1122) 때 국사 혜조가 중창하면서 이름을 약사암으로 바꾸었는데 이 암자가 바로 지금의 약사암입니다. 신라시대 860년(헌안왕 4년) 증심사 창건보다 이전에 세웠다고 합니다.

	약사암에 보존되어 있는 유물로서 석조여래좌상(보물 제 600호)과 3층석탑이 모두 9세기 전반기의 작품으로 추정되어 있어 증심사보다 이전에 지어진 사찰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법당과 요사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ㄱ'자형의 작은 절집이었으나 대웅전, 운림서원 요사채 및 운림당, 새인봉 아래 일주문까지 세워 오늘날의 완전한 가람형태를 갖추었다. 대웅전은 1980년대에 지었는데 안에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한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00호)를 본존으로 모시고, 독성탱화·칠성탱화·산신탱화·신중탱화 등의 불화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이제 우리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무등산국립공원은 호남의 영산 또는 어머니의 산이라 불립니다.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입니다. 인구 150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있으며 연간 약 700만명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통해서 무등산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산행을 통해 무등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시간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지구를 방문하실 때에는 다른 누구보다 아는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시간동안 저를 따라 이동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무등산」- 박선홍, 다지리(2008)
- 「무등산 자연자원 및 기초 현황 조사」,광주광역시 (2009)
- 「무등산 주상절리대 일대 학술조사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방안」, 광주광역시 (2013)